

##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칠 수재들을 키워내기 위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

량 인 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에게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칠만 한 수재들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재론을 반대하는것이지 결코 수재를 키워내는것을 반대하는것은 아닙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7권 210페이지)

집단의 발전을 확고히 보장하면서 매 사람의 소질과 재능을 꽃피워주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의 커다란 우월성이며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하는것은 전문분야의 특출한 인재를 양성하며 과학기술교육의 전반적수준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위업수행과 혁명발전의 절실한 요구로부터 학교들에서 수재교육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수재들을 키워내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였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주체의 수재교육리론에 기초하여 수재교육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주체의 수재교육리론에서는 우선 수재교육과 관련한 종전의 견해들이 가지고있던 약점과 부족점을 극복하고 과학적인 해답을 주었다.

우리 당은 수재와 수재교육에 대한 주체적인 리해와 관점을 밝히었다.

수재와 수재교육의 본질을 해명하고 그에 대한 리해와 관점을 옳바로 세워야 그에 토대하여 수재교육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똑바로 해결할수 있다.

수재란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뛰어난 인재 다시말하여 높은 창조적능력을 소유하고 인류의 과학문화발전에 실제적인 기여를 하는 뛰어난 인재라는것이다. 높은 창조적능력, 바로 여기에 수재의 본질적특성이 있으며 그것을 체현하는것으로 하여 수재로 불리우게 되는것이다.

사회발전, 나라와 민족의 융성번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으로 하여 수재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 된다.

우리 당은 수재에 대한 주체적인 리해에 기초하여 수재교육의 본질과 사명에 대하여서도 해답을 주었다.

수재교육은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수재형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주어 전문부문의 특출한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수재교육은 첫째로 그 대상이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라는것, 둘째로 뛰어난 대상의 특성에 맞게 교육체계와 내용, 방법을 합리적으로 따로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는것, 셋째로 과학기술, 문학예술, 체육 등 전문분야별로 유능한 인재를 키우는것

을 목적으로 한다는것이다.

이렇게 수재교육의 본질을 그 대상, 교육과정, 교육목적의 세가지 측면에서 규정함으로써 수재교육에 대한 과학적리해가 서게 되었다.

사회주의교육에서 수재교육의 사명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직한 전문분야의 특출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지 않는 인재는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쓸모도 없으며 그러한 인재를 키우는 교육은 사회주의교육의 본성과 아무런 인연도 없다. 여기에 다른 나라들에서의 수재교육과 우리의 수재교육이 사명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다.

주체의 수재교육리론에서는 또한 내용에 있어서 독창성으로 일관된 과학적인 해답을 주었다.

우리 당은 오랜 기간 논쟁거리로 되어오던 수재가 유전이나, 아니면 교육의 결과나 하는 문제에 명철한 결론을 내리고 수재교육의 리론과 실천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완벽한 해답을 주었다.

특히 수재교육의 원리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첫째로 천성적인 뛰어난 소질을 가진 수재형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주어야 수재가 나온다는것, 둘째로 수재형은 어릴 때부터 나타나며 그것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는것, 셋째로 수재교육에서는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면서 높은 창조적능력을 형성시키는데 기본을 두어야 한다는것, 넷째로 조기교육, 기초교육과 전문교육, 집단교육과 개별교육을 잘 배합하여야 한다는것 등을 밝히었다.

이 리론들은 특출하게 뛰어난 수재육성의 합법칙성을 밝힌 과학적원리로서 모든 분야의 수재교육사업에서 시종일관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침으로 된다.

주체의 수재교육리론은 반동적인 《수재론》과 근본적으로 다른 혁명적인 교육리론이다.

제국주의자들과 부르쵸아어용학자들의 《수재론》은 사람을 처음부터 《수재》와 《둔재》로 갈라놓고 그것을 절대화하는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수재론》은 반동적인 부르쵸아《인종론》과 《숙명론》에 기초한것으로서 인민대중에 대한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착취계급의 반인민적인 사상이며 사람의 사상의식과 지능발전에서 교육이 가지는 결정적역할을 외국하는 비과학적인 리론이다.

주체의 수재교육리론은 이러한 반동적인 《수재론》과 아무런 인연도 없으며 근본적으로 차이다.

주체적인 수재교육리론은全民교육을 통하여 집단의 발전을 보장하는 기초우에서 사람들의 개성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립장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나 부르쵸아《수재론》은 집단의 발전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에 상관없이 수재교육문제를 론하고있다.

주체적인 수재교육리론은 뛰어난 재능의 발전에서 소질과 교육의 호상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에 기초하고있으나 부르쵸아《수재론》은 유전적인 인자, 천성적인 소질을 절대화함으로써 교육적작용의 의의를 완전히 무시한다. 결국 《수재론》은 집단의 발전을 무시하고 개인의 공명과 출세만을 추구하는 개인리기주의적인 인간을 키울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에 무관심하고 사회발전의 일반적원리도 알지 못하는 기형적인 인간, 극단한 개인주의에 물젖어 인간의 리성과 초보적인 량심마저 켜버리고 개인의 명예

와 안락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높은 재능을 가지고있어도 수재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부르조아적인 《수재론》을 결정적으로 배격하고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새 세대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을 당과 수령을 위하여,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수재로 훌륭히 키워내야 한다.

이처럼 우리 당이 밝힌 주체의 수재교육리론에는 주체적인 교육령도과정에 쌓은 풍부한 실천적경험이 집대성되어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생활력이 확고히 담보되는것이다.

우리 당은 다음으로 우리의 수재교육체계에서 뛰어난 인재를 육성하는 수재교육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우선 보통교육단계에서 수재교육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개선강화해나가도록 하였다.

보통교육단계의 수재교육체계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것은 제1중학교체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73(1984)년에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에 최상의 교육조건을 갖춘 평양제1중학교를 일떠세워주시고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도들에 제1중학교를 내오도록 하시였다.

우리 당은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현실적요구로부터 전문분야의 특출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하여 1980년대에 평양제1중학교를 본보기로 온 나라에 제1중학교체계를 세우고 확대해나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주체84(1995)년 평양모란봉제1중학교에 이어 평안남도 순천제1중학교를 비롯하여 도들에 제1중학교들이 수재학교로 개교되어 보통교육단계의 수재교육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지게 되었다.

제1중학교들은 뛰어난 학생들을 받아들여 주로 과학기술부문의 유능한 인재로 키우는것을 목적으로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 외국어교육을 폭넓고 깊이있게 주도록 교육강령을 구성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있다.

보통교육단계의 수재교육체계에서 컴퓨터수재양성체계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컴퓨터수재양성사업을 나라와 민족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로 보시고 컴퓨터수재양성기지를 꾸려 컴퓨터수재를 많이 키워내도록 하시였다.

당의 구상과 조치에 따라 마련된 우리의 수재교육체계는 재능있는 과학자, 기술자후비를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질적으로 키워내는 우월한 교육체계이며 정보기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의 특성과 발전추세에 맞는 현대적과학기술인재양성체계이다.

보통교육단계의 수재교육체계에서 음악수재교육체계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64(1975)년 5월 만수대예술단의 공연을 보시고 수재양성사업에 큰 힘을 넣어 재능있는 독연가들을 많이 키워낼데 대한 교시를 주시였으며 그후 평양음악무용대학(당시)에 내오는 독연가양성반의 학생선발과 교육강령작성, 교육조건보장 등 음악수재교육을 위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예술교육은 본질에 있어서 수재교육이라고 밝혀주시고 예술교육기관들에서는 조기교육, 수재교육을 강화하여 세계적으로 뛰어난 독창가수, 독주가, 독무가를 키워내도록 하시였다.

우리 당은 이미 1970년대에 음악예술교육부문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뛰어난 음악적소

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특별히 교육을 주는 독연가양성반과 독연강좌를 내오게 하여 음악수재교육체계의 시초로 열어놓고 더욱 발전시켜왔다.

조기에술교육체제로서 조기음악반, 조기성악반 등이 있다. 평양시안의 경상유치원과 대동문유치원, 오탄유치원, 창광유치원 그리고 전국의 도소재지들의 음악반에서 어린이들에게 피아노, 바이올린, 가야금, 해금에 대한 전문연주교육을 주고있다. 중학교들의 성악반에서는 성악조기교육을 주고있다.

한편 문학에 뛰어난 소질과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보통교육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하여 도들에 있는 외국어학원에 문학수재후비들을 키우는 문학반을 내오고 우수한 교원을 배치하여 작가후비를 키워내고있다.

또한 고등교육단계의 과학기술수재교육체제도 정연하게 세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새 세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보통교육단계의 수재교육을 고등교육단계로 잘 연결시켜 대학들에서 우수한 학생들로 수재학급 또는 수재반을 조직하고 수재교육을 하도록 하며 대학과정과 박사원과정을 직접 연결시키는 연속고등교육체제를 더욱 연구완성하도록 하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에서는 제1중학교 졸업생들을 비롯한 뛰어난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주고있다.

그리고 특출한 림상실기를 가진 의사와 재능있는 건축가, 미술가, 유능한 정보기술일군을 양성하는 체계도 세워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작가후비양성사업도 당적으로 내밀어 전망성있는 대상들을 작가후비로 키우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미 김형직사범대학에 나온 작가양성반은 작가후비양성에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었다. 작가양성반을 나온 사람들속에서는 이름있는 시인들과 중견소설가들이 많이 배출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대학의 3년제작가반의 규모를 늘이고 재능있는 대상들을 받아들여 작가양성사업을 중단없이 밀고나가며 외국어학원들의 문학반에서 공부한 학생들을 여러 대학들에도 보내도록 하시였다.

이처럼 우리 당은 보통교육으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수재교육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줌으로써 뛰어난 자질을 갖추고 특출한 과학기술적성과를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우리 당은 다음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하며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는 인재들을 육성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의 우월성을 빛내여가도록 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수재교육은 과학기술부문에서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평양제1중학교에서는 주체73(1984)년에 새로 일떠선 때로부터 20년간에만도 졸업생들가운데서 20대의 박사들을 포함하여 백수십명의 학위소유자들이 배출되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미 세워진 제1중학교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그 우월성이 충분히 발양되도록 제1중학교의 신입생모집사업을 잘하며 교육강령을 개선완성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그리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을 현대화하고 교육의 질

을 한계단 높일수 있게 제1중학교들의 교육조건과 교육방법을 개선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특히 국제수학올림픽참가자후비들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조치를 취해주시여 주체조선의 슬기와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고 제1중학교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국제수학올림픽에 참가한 우리 학생들속에서 많은 금메달수상자들이 배출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관심과 크나큰 은정속에 대학들에서의 박사원교육이 개선강화되고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주요대학들에 과학연구원들이 나와 20대, 30대의 세계적인 발명가, 학술권위자들을 많이 키워내고 나라의 국방력강화와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할수 있게 되였다.

수재교육을 통하여 육성된 인재들은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을 비롯한 첨단과학연구분야에서 핵심적역할을 하고있다.

그들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현대화, 정보화를 추진하고 경영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서 훌륭한 성과들을 련이어 이룩하였다.

참으로 과학기술부문의 뛰어난 인재를 육성하고 주체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것은 우리 당이 주체적인 수재교육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여 마련한 만년재부이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수재교육은 문학예술부문과 체육부문에서도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첫날부터 예술교육을 나라의 예술발전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고 예술교육에서 특출한 재능을 가진 예술인재를 키우는데 기본을 두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예술인들속에서 예술지상주의를 배격하고 예술의 당적사명을 알고 당과 혁명위업을 받들어나가도록 하였다.

영화와 가극, 연극, 음악부문에서 명작들이 련이어 창작형상되고 문학, 미술, 무용, 회화, 조각, 교예 등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에서 성과들이 이룩되어 주체적문학예술의 대전성기가 펼쳐진것은 우리의 문학예술인대오가 유능한 인재들로 튼튼히 꾸려졌다는것을 웅변으로 확증하였다.

우리 당은 새 세기에 들어와 뛰어난 재능을 가진 특출한 예술인재를 키워내는것을 문학예술발전의 현실적요구로부터 더욱 절박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시대정신이 맥박치고 사상예술적으로 원숙한 문학예술은 폭넓은 시야와 높은 실력을 가지고 세계를 굽어보면서 끊임없이 새것을 개척해나가는 뛰어난 예술인재들에 의해서만 창조될수 있다.

예술교육기관들에서는 우리 당의 지도밑에 창작된 명작들의 높은 형상수준을 견지할뿐아니라 시대의 새로운 명작들을 만들어낼수 있는 음악, 무용, 영화, 연극, 미술부문의 뛰어난 인재들 특히 세계적인 독연가, 명배우, 미술가, 연출가, 촬영가, 창작가들을 키워내여 주체예술의 명성을 높이 떨치였다.

체육부문에서도 체육선수후비육성사업을 전망성있게,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뛰어난 체육인재들이 수많이 자라났으며 국제경기들에서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빛내이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체육강국건설에서는 자랑스런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깊은 관심속에 금메달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치고 값높은 생의 자욕을 뿌렸이 아로새긴 체육인들은 우리 당과 조국과 인민이 기억하는 참된 애국자로 자라날수 있었다.

참으로 우리 당의 올바른 교육정책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과학기술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첨단을 돌파하며 세계적패권을 쥐기 위한 인재들이 수많은 자라나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게 되었다.

현시대는 지식경제시대, 두뇌전의 시대이며 나라를 발전시키자면 인재가 많아야 한다. 오늘에 와서 우리의 재부는 황금이 아니라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첨단과학기술로 준비된 인재이다.

모든 교육자들은 우리 당의 교육중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과 수령에게 충실하고 현대과학기술에 정통한 뛰어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냄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을 만방에 떨쳐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수재교육, 인재